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6. 5. 7.(목) 오전 07: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운영부	책임자	부장	박혜원	032-290-2030
		담당자	학예사	최서진	032-290-2033

“한자의 시작을 눈으로 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에 갑골문 복제품 새롭게 공개

- 학술 데이터 기반 복원된 갑골문 2점 공개
- 전쟁·농사 점복 기록 통해 고대인의 사고와 문자 사용 방식 조명
- 향후 ‘한자 대전’ 기획특별전으로 확장 추진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명인)은 지난주부터 상설전시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 개편을 통해 갑골문 복제품 2점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개편으로 관람객은 현재까지 알려진 한자의 가장 초기 형태를 전시실에서 실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갑골문은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의 학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원된 자료로, 상설전시 1부 <한자, 문자가 간직한 오랜 역사> 구역에 배치됐다.

갑골문은 거북 껍질이나 동물 뼈에 새겨진 문자로, 기원전 중국 상(商)나라 후기의 점복 기록이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 농사, 날씨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을 치고 그 결과를 문자로 남겼으며, 이번 전시에는 전쟁과 농사에 관한 점복 내용이 담긴 자료가 각각 포함돼 있다.

이번 개편은 한자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문자 사용 방식과 그 안에 담긴 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상나라 사람들이 전쟁과 농사 등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문자로 남겼는지 살펴보면서 문자가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 판단과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된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전시 연계 활동지도 마련됐다. 활동지는 간단한 퀴즈와 나만의 갑골문을 꾸며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들이 한자와 갑골문을 쉽게 이해하고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내년 하반기 한자 문화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확장해 조명하는 기획특별전 ‘한자 대전’ 개최를 준비 중이다. 향후 중국 고궁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동아시아 문자문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이미지 자료(전시 자료 및 공간) 1식. 끝.



[사진1] 전쟁에 관해 점을 친 갑골문
(대만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 소장)



[사진2] 농사에 관해 점을 친 갑골문
(대만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 소장)



[사진3] 전시 공간(전체)



[사진4] 전시 공간(세부)



[사진5] 전시 공간(세부)



[사진6] 전시 연계 활동지